



이모습 다시 한번...

은퇴냐 현역이나... 기로에 선 베테랑

■ 프로야구 9개 구단 KBO에 보류선수 명단 제출

두산 김선우, 은퇴후 코치연수 제안 거절

한화 강동우·SK 최영필 등 재계약 불발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라운드를 누비던 노장들이 갈림길에 섰다.

프로야구 9개 구단은 25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보류선수 명단을 제출했다. 구단은 재계약 대상자들을 보류선수로 묶는다. 보류선수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은 사실상 방출을 의미한다.

KBO는 30일 보류선수 명단을 공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두산 투수 김선우(36), 한화 외야수 강동우(39), SK 투수 최영필(39), 롯데 외야수 정보영(33) 등 한때 팀의 주축으로 활약했으나 이번에 재계약이 불발된 선수들의 이름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두산은 25일 김선우와 외국인 투수 데릭 헨킨스를 포함해 김동길, 오성민 등 4명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선우는 미국 메이저리그 통산 118경기에서 13승 13패를 올린 뒤 2008년부터 토종 이스

로 두산 마운드를 지켜왔다. 그러나 지난 시즌 6승 9패에 평균자책점 4.52에 그치더니 올 시즌에도 17경기에 출전해 5승 6패와 평균자책점 5.52로 부진이 계속됐다.

젊은 선수들 위주로 팀을 재건하려는 구단 방침까지 서면서 김선우가 설 자리는 없었다. 두산은 은퇴 후 코치 연수를 제안했지만 김선우는 다른 팀에서라도 선수로 계속 뛰고 싶다고 이를 거절했다.

한화 강동우는 22일 2차 드래프트가 끝나고 나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1998년 삼성에 입단해 첫해부터 3할 타율(0.300)을 기록하고 2002년 한국시리즈 우승에도 힘을 보탠 강동우는 두산-KIA를 거쳐 2009년부터 다섯 시즌 동안 한화 유니폼을 입었다. 최근 2년간 부상 등으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결국 찬 바람을 맞았다.

'FA 미야'가 됐다가 우려곡절 끝에 재계약의 발

판을 놓았던 SK 투수 최영필도 팀을 떠난다. 1997년 현대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한 최영필은 한화에서 뛴 2010년 시즌 후 자유계약선수(FA) 권리를 행사했다. 하지만 그 어느 구단의 부름도 받지 못해 일본 사회인야구에서 1년을 보내다가 SK에 겨우 입단했다.

지난해 46경기에서 2승1패 5홀드에 평균자책점 4.58의 성적을 냈지만 올해 1세이브 3홀드 평균자책점 6.23만을 남긴 채 7월 이후에는 1군 무대를 밟지 못했다.

2003년부터 롯데에서만 활약해온 정보영과 외야수 이인규(33)도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보영은 119경기를 뛰며 타율 0.282를 기록한 2007년을 정점으로 매년 출전 횟수가 줄어들었고 이인규는 지난해부터 부상에 시달리며 제 몫을 못했다.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들은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2011년 롯데의 코치직 제의를 물리치고 신생 NC에 입단해 화려하게 부활한 투수 손민한(38)처럼 방출을 재계약의 기회로 삼은 선수들이 있다. 반면 박재홍(40)은 지난해 소속팀 SK의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뒤 다른 구단 입단을 타진하다 결국 은퇴를 선택하기도 했다.

김선우를 비롯해 최영필 등 이번에 보류선수 명단에서 빠진 선수들은 대부분 계속 현역으로 뛰길 원하고 있다. 한화에서 방출된 백승룡(31)은 벌써 넥센에 새동지를 틀었다. /연필뉴스

이용규 대신 '한승택'

KIA, 보상선수로 포수 지명



이용규를 보낸 KIA가 신인 포수 한승택을 뽑았다.

KIA가 26일 한화와 FA(자유계약선수) 계약을 맺은 이용규의 이적 보상 선수로 덕수고 출신의 포수 한승택(19)을 지명했다.

지난해 청소년대표팀 안방마님을 맡은 한승택은 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전체 23순위로 이름이 불린 고교 최고 포수다. 174cm 76kg로 포수로서는 작은 체격이지만 손발력이 좋고 영리한 플레이를 한다는 평가다.

입단과 함께 한화 김응용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은 '월성부른 떡잎' 한승택은 프로 첫해부터 마스크를 쓰면서 24경기에 이름을 올렸다. 타석에서는 33타수 1안타로 부진했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유망주다.

한승택은 미래의 선배이다. 12월 경찰청 입대를 앞둔 한승택은 2년 뒤 주전 경쟁에 뛰어든다. 대졸 신인 이흥규와 군복무를 마친 백용환 등으로 미래를 그렸던 KIA는 포수 양성의 다양한 경로의 수를 늘 수 있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

산삼 캐고 김치 담고... 광주FC, 사랑을 외치다

전북 완주서 김장 나누기 봉사



26일 완주 지리산 산삼 농장을 찾은 광주 FC 선수들이 직접 캔 산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선수들은 이날 '산삼김치'를 만들어 김장봉사활동을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가 산으로 간 까닭은?

광주 FC 선수들은 26일 스파이크 대신 운동화를 챙겨 나섰다. 오는 30일 고양 Hi FC와의 K리그 챌린지 최후의 승부를 앞둔, 3위라는 목표를 두고 갈림길에 서 있는 선수들은 공을 차는 대신 산행을 했다.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 산길을 오른 선수들의 입에서 이내 '삼쌔다'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산삼캐기가 이날 선수들에게 주어진 미션 중 하나였다.

심을 분곳은 완주 만덕산 자락에 위치한 산삼농장. 선수들이 완주까지 걸음을 한 이유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매년 겨울 연탄배달, 김장하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선수들은 이번에는 그냥 김치가 아닌 '산삼김치'를 준비했다.

광주 선수단을 후원하고 있는 지리산삼 영농조합법인(대표 고천규)이 산삼 300뿌리를 후원 해주면서 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됐다.

지난 겨울 양치마를 둘러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은 정성스레 김치를 버무렸다. 처음 배추 앞에 선 선수들의 어색한 손길까지 더해지면서 준비된 300포기의 배추는 잘게 다져진 산삼과 어우러진 '산삼 김치'로 변신했다. 브라질 출신의 카를로스 피차럴 코치도 어설피지만 정성스런 손길로 봉사활동에 힘을 보탤다. 박해구 단장을 비롯한 프런트들도 손을 더했다.

공격수 김호남은 산명난 노래 한편으로 "운동하는 게 더 쉽다"며 허리를 도약하던 선수들에게 큰 웃음을 선물하기도 했다.

광주는 지난 23일 경찰청의 홈 페막전에서 1-3으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3위 확정을 K리그 챌린지 최종전으로 미루게 됐다. 우승 실패와 홈팬들에게 최종전 승리를 안겨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던 선수들은 모처럼 활짝 웃으며 훈련보다 더 값진 시간을 보냈다.

남기일 감독대행은 "선수들이 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다. 아이들이

같은 축구선수를 울타리에서만 지내는데 이렇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도 했고 산삼으로 힘을 냈으니까 고양전에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프로에서의 첫 시즌을 보낸 광주의 막내 오도현에게도 좋은 추억이 됐다.

오도현은 "올 시즌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승격이라는 선물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고

아쉬운 마음 뿐이다.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사하니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고 뿌듯하다"고 웃었다.

한편 광주 선수단의 정성이 담긴 산삼김치 300포기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지사의 도움으로 추운 겨울을 홀로 나아가는 광주지역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완주=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내일 챔스리그 맨유전 첫 골 재도전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손세이셔널' 손흥민(21)이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미수결이 끝에 다시 도전한다.

손흥민의 소속팀 레버쿠젠은 28일 오전 4시45분(한국시간)부터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리는 2013-2014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A조 5차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이하 맨유)와 격돌한다.

레버쿠젠은 조별리그 4경기에서 2승1무1패(승점 7)를 거둬 조 2위에 올라 있다.

레버쿠젠에 유일한 패배를 안긴 팀이 바로 맨유다. 맨유는 9월 18일 레버쿠젠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4-2로 이긴 것을 시작으로 2승2무(승점 8)의 '무패 행진'으로 A조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레버쿠젠으로서는 지난 패배의 설욕뿐만 아니라 조 2위까지 주어지는 16강 진출권 사수를 위해서라도 승점 3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레버쿠젠이 맨유에 달미를 잡히면 현재 조 3위인 샤흐타르 도네츠크(우크라이나·승점 5)의 같은 날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레버쿠젠이 자랑하는 '삼각관대'의 한 축을 맡는 시드니 샘이 부상으로 경기에 뛠 수 없게 되면서 반대쪽 날개인 손흥민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샘은 지난 주말 헤르타 베를린과의 정규리그 경기에 선발로 나섰다.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허벅지 부상으로 교체됐고, 이번 경기에도 결장한다. 이에 따라 손흥민과 슈테판 키슬링에게 공격의 중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골 가뭄'에 시달리던 손흥민은 지난 10일 함부르크와의 정규리그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폭발하며 모처럼 '골 맛'을 봤다.

손흥민이 다시 한 번 맨유를 상대로 의미있는 기록을 남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필뉴스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2013년 송년 디너쇼



— 프로그램 —

18:30 입장
19:00 식사
20:00 공연
21:30 퇴장





남진

일시 | 2013년 12월 12일(목) 18:30

장소 |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 볼룸

165,000(세금포함)

예약문의 | 062)228-4711~2